

전당장 직무대행·이원체제 지속...문화전당 정상화 힘로

국회 '아특별 개정안' 사실상 폐기 사업·인력 운용 등 비효율 계속 21대 국회 실효적 조치·정비 필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 일부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 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근거가 될 이 법안이 최종 폐기될 경우 문화전당 정상화에도 힘로 예상된다.

당초 ACC의 국가 운영 기간 종료 시한은 지난 4월 13일이었다. 아특별에 따라 지난 4월 ACC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당 운영 방식을 현재의 일부 위탁 방식에서 전부 위탁 방식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운영 종료 시한을 앞두고 지난해 8월 기간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총선과 이후 유동적인 정국 상황과 맞물려 통과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당분간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와 이원화 체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겨야 하는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화전당이 개관 5주년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안정한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측은 지난 3월 아특별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ACC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한다는 부칙과 관련, 성과평가를 언제 실시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법제처에 의뢰했다"며 "그 결과 성과평가를 당초 만료일부터 그 해 말까지 연장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한 성과 평가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이원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관리 및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지만 콘텐츠의 창작

과 제작을 비롯한 수익 창출 등은 아시아문화원이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다시 말해 문화전당이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수립·대외 협력·아시아문화원 관리 감독 등을 맡아왔고, 아시아문화원은 홍보와 교육·콘텐츠 창작·유통·기타 사업을 하는 구조다.

문체부 소속 문화전당 직원 50여 명이 160여 명의 아시아문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는 사업 및 업무 중복 문제뿐 아니라 예산, 인력 운용 상의 비효율을 원인으로 지목됐다.

물론 광주시는 ACC의 운영 주체를 법인으로 일원화했을 때 콘텐츠 창작 등 국비 예산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국가기관으로 유지하고 수익사업 등이 필요한 부분만 아시아문화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역 문화예술 인력의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민간 조직이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제3의 방식'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ACC가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직무대행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술의 전당 역대 전당장 3분의 1이 차관급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상에 맞게 차관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이 명색이 국가기관이지만 개원 후 5년간 전당장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ACC가 지난 4년간 1000만명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했지만 그럼에도 대표 콘텐츠 부재는 여전히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판타지극 '무사MUSA-불멸의 영웅들'을 대표 콘텐츠로 내세웠지만 대체로 "킬러 콘텐츠로 내세우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뒤따라, 현재 작품 수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슨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보수 정권 10년간 축소 별해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사업과 문화전당 활성화 약속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와 제도적 정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운영의 일부 위탁규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근거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않아 폐기 수순인 것으로 알려져, 문화전당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국무조정실장 교체 검토...총선후 첫 장관급 인사 가시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물망

문재인 대통령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교체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4·15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선이 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날 법무차관 교체와 맞물려 연세 인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교체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호흡'을 고려한 '원포인트' 성격의 인사일 뿐 본격적인 부처 개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후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음주 쯤에는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후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정 총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나며 어느 정도 안착을 한 만큼 손발이 맞출 국무조정실장에 새 인물을 기용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무조정실장 교체가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각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지난 27일 교체된 김우중 법무부 차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장관급 연쇄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인구 4개월째 자연감소 "사망자 늘고 출생아 줄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갈수록 늘고,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 격차가 벌어지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인구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2854명으로 1년전 보다 2919명(11.3%) 줄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1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개월 연속으로 매달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5419명으로 1년 전보다 2492명(10.9%)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월 기준 1983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이에 따라 2월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565명으로 1983년 통계 집계기 시작한 이후 2월 기준으로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연증가분은 작년 11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역시 198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로 늘고, 출생아는 역대 최소로 줄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나라 연간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40% 돌파, 황교안 6%로 추락

리얼미터 여론조사...이재명 2위

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19국난극복대책위원회장에 대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24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5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 포인트)한 결과 이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는 40.2%로 지난달보다 10.5%포인트 올랐다. 이 위원장은 2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11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충청권(41.2%), 부산·울산·경남(35.8%), 강원(37.6%), 연령대별로는 20대(35.0%)와 40대(46.5%), 60대 이상(37.0%)에서 선호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4%로 최고치를 또 경신해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 이 지사의 경우 호남(18.1%), 60대 이상(10.5%), 진보층(18.3%), 학생(14.2%)과 노동직(15.1%)에서 주로 상승했지만 강원(8.1%), 20대(11.5%), 보수층(8.0%)과 중도층

(15.0%), 자영업(15.4%)에서는 하락했다.

대구 수성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7.6%를 기록해 처음으로 3위에 올라섰다. 홍 전 대표는 대부부의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경기·인천(7.0%)과 서울(8.9%), 대구·경북(11.7%), 20대(10.7%)와 30대(8.2%), 60대 이상(8.1%), 보수층(18.9%), 가정주부(9.7%), 사무직(7.8%)에서 주로 상승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참패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13.4%포인트 하락한 6.0%를 기록하며 4위로 내려앉았다. 안철수 전 의원은 0.6%포인트 하락한 4.9%로 5위를 기록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7%로 6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승민 의원(3.3%, 0.8%포인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2.1%, 0.5%포인트 ↓), 박원순 서울시장(2.0%, 1.5%포인트 ↓), 원희룡 제주도지사(2.0%, 0.6%포인트 ↑), 심상정 정의당 대표(1.9%, 0.1%포인트 ↓), 김부겸 의원(1.7%, 변화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5.1%, '모름·무응답'은 3.1%로 집계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